

발달은 단계적 적응

(소아의 발달 과제)

어린아이가 태어나 생존을 계속하려면 우선 그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처해진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적응(適應)을 이루어야만 한다. 소아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적응(適應)과 변신(變身)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발달(發達)은 세포 수의 증가와 기관의 성숙을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발달과 그 개체가 살아가면서 겪어 나가는 경험적인 발달이 동시에 진행된다. 생물학적인 발달의 요소에는 타고난 기질, 특정 인자의 유전, 지능 및 신체적인 상태가 있으며, 경험적 발달에는 부모의 양육 방식, 동기(同氣)의 수와 그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 경제적인 여건 및 학교의 경험 등 환경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의 정신적 성장은 일련적(一連的)인 것이 아니고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으며, 그 발달 단계에서의 과제는 그때그때 해결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내질러 놓으면 그냥 알아서 크는 것'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각 단계마다 발전 과제를 이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완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과적 관점에서 어린 환자를 보는 견해는 이 아이가 현재 발달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으며 그 단계에서 박탈당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가 이룩해 내야만 하는 발달 과제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하는 데에 있다. 정상적인 어린이의 정신 사회적 발달상은 다음과 같다.

출생 후 1.5세까지는 애착과 기본적 신뢰감(basic trust)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때 어린이는 낯가리기를 하며 엄마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애착 행동(愛着行動)을 보인다.

충분한 자극과 애정에 찬 상호관계가 필수적이며 기계적인 보살핌보다는 감성이 풍부하게 전달되는 사랑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는 모성(母性)이 있을 때 어린이는 자기 자신과 모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1.5세에서 3세까지, 자율과 독립심,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그는 자신과 남이 다른 개체라는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걸음마를 배우고 대소변 가리기를 하며 자신의 주장과 개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감독과 통제, 지도를 통하여 자기 통제의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옳고 그름, 청결함과 불결함, 사랑과 미움에 대한 감정이 싹튼다. 형제와의 경쟁심과 질투심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습득하게 된다. 이 때에 부모의 확고하고 믿음직한 통제와 지도가 필수적이다.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3-6세에 어린 개체는 자신과 같은 성(性)을 가진 부모와 동일화(同一化)를 이루어 가며 여성화 또는 남성화를 진행해 간다. 가족, 학교 등 사회의 개념이 생기고 사회적 풍습과 전통, 가치관의 정립이 시작된다. 이 때에 양심과 죄의식이 싹튼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부부 관계의 패턴이 중요한 모델이 된다.

6-12세는 학령기로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시작한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동시에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체 의식도 싹튼다.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12세 경부터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18세 경까지의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自己正體性)의 시기이다.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며 '나는 무엇인가'하는 깊고 무거운 주제로 고민을 하며 '인생의 역사성'에 대한 의식이 싹튼다. 고민과 방황은 이성에 대한 막연한 열정과 함께 그 정도를 더해 간다.

이 모든 단계는 그 나름대로 특징적인 색채를 띤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당장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후일 신경증이나 정신병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